

## SSG닷컴, '백화점 배송·반품 올 프리패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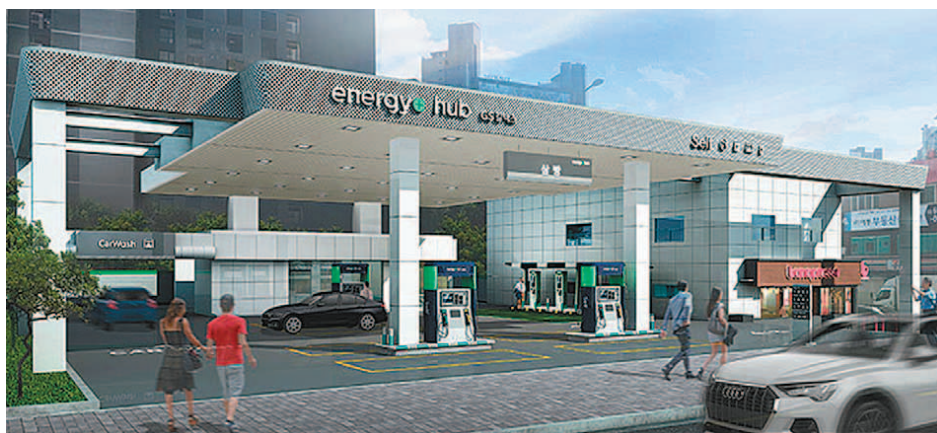
SSG닷컴이 '백화점 배송·반품 올 프리패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신세계백화점몰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 및 개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배송 쿠폰을 발급한다. 무료 반품은 월 10회까지 가능하며 반품비를 내면 SSG닷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SSG머니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동일 상품의 재반품, 산선식품, 가구, 가전, 설치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에너지업계, 전기차 서비스 경쟁

# 픽업·시승·쇼핑... "충전 스트레스 끝"

국내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4962대로 2017년 2만 5108대와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친환경 경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구나 충전할 수 있는 공개된 전기차 충전기가 지난해 말 기준 3만4639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와 에너지 업계에서는 '찾아가는 충전 대행 서비스', '고품격 충전 인프라' 등을 속속 선보이며 충전 스트레스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픽업엔 충전 서비스' 론칭  
충전·실내 청소 후 고객에게 인도  
BMW, 국내 첫 차징 스테이션 마련  
GS칼텍스, 카셰어링·편의점 결합

### ●픽업엔 충전 서비스로 스트레스 줄인다

현대자동차는 10일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혁신 서비스인 '픽업엔 충전 서비스'를 론칭했다.

'마이현대(myHyundai)' 앱을 통해 2만 원을 결제하면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차량을 픽업해 충전 및 간단한 실내 청소를 마친 뒤 고객에게 다시 인도해주는 충전 대행 서비스다.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17MY 이후 DC콤보 타입 차량)이 대상이다. 충전 비용은 별도 실비 정산(1kWh 기준 255.7원)이지만 탁송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고, 추가 5000원 결제하면 하루 1회 세차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픽업엔 충전 서비스'는 매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의 총 5개 타임으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5건씩 1일 총 25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고객들의

충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개념 충전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전기차 최대 등록지인 서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차 라이프를 위해 다양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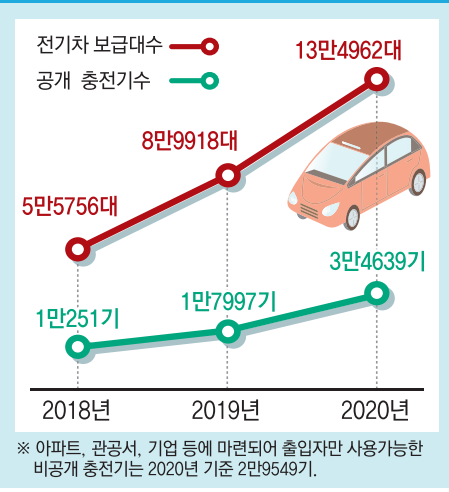
기아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YW모바일과 함께 픽업 충전 플랫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호출·차량 픽업·급속 충전·차량 인

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 출시 시점에 맞춰 전국 범위의 온디맨드 픽업 충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고품격 서비스로 새로운 충전 경험 제공

전기차 충전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품격 서비스도 속속 나오고 있다. BMW 공식 딜러사인

## 2018~2020년 공개 충전기수와 전기차 보급대수



한독모터스는 용산 아이파크몰에 전기차 모델 특화 전시장을 열고 국내 최초의 BMW 차징 스테이션을 마련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비교 시승도 가능하다.

현대차가 SK네트웍스와 협업해 만든 강동 EV 스테이션도 새로운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다.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인 '하이차저(Hi-Charger)'가 총 8기 설치되어 있어, 800V 충전시스템을 갖춘 전기차의 경우 18분 이내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시승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을 위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채로운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량의 주행 성능과 편의 기술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시승', 카니카(Car+Picnic)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화 시승', 오후 8시까지 시승할 수 있는 '야간 시승', 직원 응대 없는 '셀프 시승'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말 충전을 하면서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에너지플러스'를 론칭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은 물론 주유, 카셰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드론배송, 편의점 및 F&B(Food&Beverage) 등을 모두 결합한 신개념 서비스 플랫폼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위기의 남양유업, 비대위 체제 전환

비대위, 경영 쇠신책·지배구조 개선 요구 예정



남양유업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오너 일가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청한다.

이 회사는 10일 "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경영 쇠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비대위원장은 정재원 남양유업 세종공장

장이 맡기로 했으며 아직 세부 위원회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경영 쇠신책 마련과 함께 대주주인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양유업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인 흥 회장이 51.68%를 보유하고 있고, 흥 회장의 부인과 동생 등 일가 주식을 합하면 53.08%에 이른다. 이에 흥 회장의 지분 매각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도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흥 회장이 4일 '불가리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계속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난 여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3일 사의를 표명한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 경영인이 선정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셀트리온, 파키스탄에 코로나 치료제 수출

'렉키로나' 첫 해외진출...투약교육 위해 인력 파견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가 첫 해외수출에 성공했다.

셀트리온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0일 파키스탄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체 POF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사진) 10만 바이알(병)의 판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0만 바이알은 3만여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렉키로나 공급과 함께 투약을 담당할 현지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의료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번 판매를 시작으로 렉키로나의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과 중남미, 인도 등과도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렉키로나는 2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위험군 경증환자 및 중증증 환자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획득해 현재까지 2700여 명에게 처방했다. 또한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13개국에서 총 1300명의 글로벌 임상3상 환자 모집 및 투약을 완료해 데이터 분석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전셋값 71억', 역대 최고가 기록한 브르넨 청담은?

전국 통틀어 역대 최고...보증금 평당 1억 넘어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시설·뛰어난 접근성 장점

기존 50억 원보다 21억 원이나 경총 뛰었다. 전국을 통틀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액.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입이 썩 벌어질만한 금액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 청담' 전용면적 219.96㎡(67평)가 올 2월 19일 보증금 7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38㎡(82평·44층)의 종전 최고액 50억 원을 크게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하 3층~지상 7층, 8가구 규모로 2019년 6월 준공된 브르넨 청담은 강남구 도산대로 99길에 위치한 럭셔리 아파트다. 이번에 거래가 된 5층의 3.3㎡당 보증금은 1억 671만 원으로 아파트 보증금이 평당 1억 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5층에 위치한 501호, 502호 두 가구는 각각 3개의 침실과 4개의 욕실을 갖추고 7층까지 3개 층의 삼중 복층 구조로 구성되었다.

'브르넨 청담'의 특징 중 하나는 오픈 발코니. 오픈테라스에서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고 전면 창 오픈시 환기 및 통풍에도 유리하다. 특히 이번에 거래된 5층은 상·중·하 모든 층에 각각의 테라스가 적용됐고, 중층과 하층은 양방향으로 창을 설치해 개방감이 뛰어나다. 또 게스트룸이나 파티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과 욕실은 물론 간단한 주방시설도 마련돼 있다.

특히 대지 레벨이 높아 세대 간 간섭이 없고, 천장고가 2.8m에 달한다. 세계적인 독일 명품 주방가구 지메틱과 손잡고 주방을 수요자 니즈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등 분양 때부터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시설'로 화제가 됐다. 청담초, 청담중, 청담고 등 교육시설과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청담동 명품 거리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성수대교, 청담대교, 율림팍대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전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한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으로 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40억 원 이상은 총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억 원이 넘는 곳도 18건이나 됐다. 주로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등 고급 아파트 단지의 대형 평형대에서 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중소형(84㎡·25평) 아파트의 경우 3월 15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97㎡)의 23억 원이 가장 높았다.

## 이통3사 "카톡처럼 문자 보내기 취소 가능"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채팅플러스'에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을 선보였다. 채팅플러스는 문자메시지와 그룹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은 물론 선물과 송금하기도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RCS)다. 새롭게 선보인 메시지 보내기 취소는 상대방의 메시지 읽음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 5분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를 2초 간 누를 때 나타나는 보내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상대방에게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시리즈이며, 서비스 가능 단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